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교환/방문학생)



| | | | | | |
|--------------|--|-------------------------------|--|---------|--|
| 인적사항 | 이름 | | 학번 | | |
| | 소속 단과대학 | | 소속 학부(과) | | |
| | 연락처 | | E-MAIL | | |
| 파견 정보 | 파견 국가 | 일본 | 파견 학교 | 고베가쿠인대학 | |
| | 파견 시기 | 2025. 9. 9 ~ 2026. 02. 12 | | | |
| | 수강 과목 개요 | 과목명 | 과목 설명 | | |
| | | Issues in Japanese Society | 유학생 대상 교양 수업. 일본의 문화와 사회적 큰 이슈들을 다루며 매 수업 발표, 토론으로 진행된다. | | |
| | | Japanese Politics and Economy | 유학생 대상 교양 수업. 일본의 정치,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최신 뉴스, 신문을 통해 정보들을 습득하며 토론, 발표를 통해 수업이 진행된다. | | |
| | | 日本の法律と政治 II | 유학생 대상 교양 수업. 일본의 법률과 정치에 관한 자료를 읽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주요 수업 방침은 토론과 자유로운 토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 | |
| | | 西洋の歴史【法・経営】 | 법학과 전공 수업. 서구의 역사를 법과 경제학 측면에서 살펴본다.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정기 기말 시험 1번으로 수업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 | |
| | | 国際法(総論)【①~④】 | 법학과 전공 수업. 국제법 총론으로 국제법의 기초를 다룬다.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매월 첫번째 주, 테스트가 존재한다. 해당 테스트는 강의 평가와 출석의 의미를 병행한다. | | |
| 少年司法 | 법학과 전공 수업. 특수성을 지닌 소년법에 대해 이론과 사례를 중점으로 다룬다. 강의식 평가지만 수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며 질문을 주고 받는 것이 활발한 수업이다. 매 수업 출석카드를 통해 강의 평가를 적고, 특별 강사를 모셔 레포트를 작성해야 한다. 기말 정기 시험 1번 치룬다. | | | | |
| 체험수기 | <p>1. 현지연수 파견 전 절차</p> <p>[2025년 4월 9일] 고베가쿠인대학 파견 프로그램 합격자 안내 교육 수강</p> <p>[2025년 4월 25일] 필요한 서류 및 정보들 파견교에 제출</p> <p>[2025년 6월 2일] 파견교 입학허가서 발급</p> <p>[2025년 7월 11일]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COE) 발급</p> <p>[2025년 7월 17일] 일본어 강의 레벨테스트 진행</p> <p>[2025년 9월 5일] 버디 프로그램 버디와 연결</p> <p>[2025년 9월 9일] 입국</p> <p>- 본격적으로 파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단계를 세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비자와 항공권 예매, 파견교에 필수적으로 제출할 서류</p> | | | | |

등을 안내받았습니다. 특히나 장학이나 학점 이수와 같은 내용들은 불이익이 존재하는 부분이기에 강조해서 교육해 주셨습니다.

2025년 2학기 파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총 11가지로 각각 여권 사진, 재정증명서, 건강검진 결과, 일본어 자격증 등을 요구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난이도는 어렵지 않으나 교환학생을 위한 건강 검진을 해주는 병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 방문 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본격적으로 COE 발급을 받고 난 뒤에는 출국 전에 받을 수 있도록 비자 신청을 마쳤습니다. 일본은 직접 비자를 받는 형식이 아닌 대행업체를 통해 받을 수 있었고 업체로 여권 및 정보를 넘긴 3일 뒤,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베가쿠인대학에서 정규 학점으로 인정되는 수업은 아니지만, 교환학생의 언어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준비한 일본어 수업 프로그램이 존재했습니다. 해당 수업은 분반 형식으로 반을 나눠서 진행하며 해당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를 줌으로 시행했습니다. 테스트는 가벼운 회화로 시작해서 JLPT 일본어 능력 평가에서 사용되는 문제들을 읽고 푸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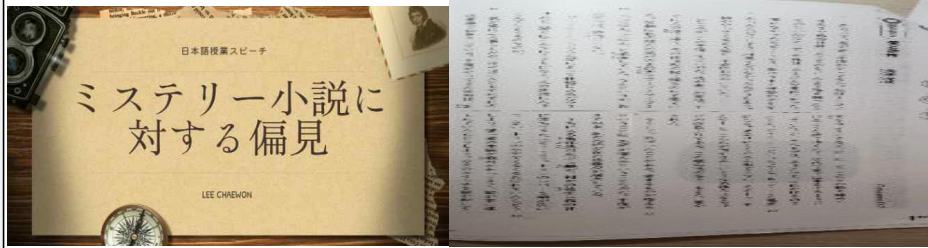
버디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면 본교 현지인인 버디와 연결이 됩니다. 버디의 이메일 주소를 안내받고 버디에게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차후 프로그램 진행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2. 외국에서의 학습 및 체험 활동 내용(교육과정 위주로 기술)

[일본어 수업]

- 학점으로 인정되는 정규 수업 외 진행되는 유학생 전용 일본어 교육 수업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일본어 실력을 테스트받습니다. JLPT를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독해, 문법, 단어 암기를 중점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오노마토페와 의성어, 의태어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국의 대학 수업 커리큘럼과 다르게 90분 수업, 15분 휴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 일본어 수업을 들을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수업 전 준비해야 하는 자료나 예습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당 수업 전에는 늘 초조한 마음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 실력이 전보다 훨씬 향상되었고, 담당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전보다 훨씬 더 올바른 발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자 읽는 것이 서툴러 일부러 회피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음독, 훈독을 구분하여 읽는 연습을 받고 배워가는 재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의 마지막 날에는 각자 준비한 스피치를 국제 교류센터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국어로 작문을 해본 것도 처음, 발표하는 것도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 발표의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부분을 알려주셔서 생각만큼 떨지 않고 잘하다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발표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일상 용어보다 더 어려운 고급 어휘들을 배울 수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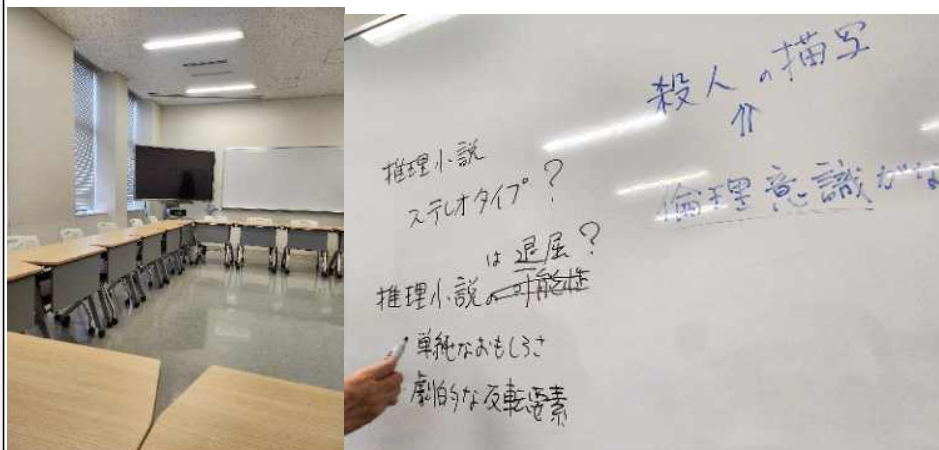


<스피치 시간에 사용한 ppt 일부와 강의 자료>

[유학생 전용 교양 수업]

-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글로벌 역량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는 글로벌 역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곳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대한민국 광주에서 태어나 평생 그곳을 떠나본 적 없는 저에게는 다소 무겁고 거리가 먼 주제였고 저와는 연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단순히 일본에 대해서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듣고 타국의 이슈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교류하는 시간을 통해 글로벌 역량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일본만의 일이 아닌 이슈도 있었으며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인식과 차이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 간의 관계는 단순하게 정립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 학생들의 의견과 교수님의 지도를 통해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학생들과 영국에서 온 학생들의 자국 이야기와, 한국과 달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정쟁 중인 나라이기에 해당 주제가 조심스럽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수업 중 자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국제 문제는 이리저리 얽혀있을 수밖에 없다는 귀한 가르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양 수업을 진행한 강의실과 수업 과정>

[전공 수업]

- 제가 교환학생을 결정한 목적이자 가장 기대하고 있던 것이 바로 전공 수업이었습니다. 한자를 읽는 건 우리가 있지만 해석하는 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현지 학생들처럼 완벽하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상상 이상으로 말이 빠르고 용어들은 복잡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은 전체의 60%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열심히 공부하는 현지 학생들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벅차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계를 느끼고 절망만 하다가 잠시 공부를 놔둔 시기도 존재했습니다만 나눠주신 수업 자료를 미리 예습하거나 복습으로 모르는 단어들을 적립해 나가며 저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메꿔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고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전공 시간에 발표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재판관으로 일하시는 외부 강사님께서 소년법에 대하여 강의하던 도중 저를 지목해 발표를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강의식 수업이 원칙이고 그마저도 제가 외국인인 걸 아는 교수님들은 저에게 발표를 시키지 않으셨지만, 강사님께서 그걸 몰랐기에 절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인 걸 모르는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이 처음이라 도중 많이 긴장했지만 끝나치고 나서는 성취감과 뿌듯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중 모든 문답을 답변하지는 못했지만, 수업에 참여했다는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전공 강의실과 판서>

[국제 교류 프로그램 - 환영회, 크리스마스 파티]

- 국제 교류 센터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교류 프로그램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유학생 환영회에서는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온 학생들을 모아 교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꼭 유학생이 아니어도 해외 학생들과 교류하고 싶은 본교 학생들을 전부 불러 모아 간단한 파티를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해당 시기에 일본에 도착해 같은 교양을 듣는 유학생 친구들만 만났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른 유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수업이 아닌 외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 아니라 교환학생 도중에 이런 행사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 걱정도 됐는데 다행히 모두 우호적인 분위기로 즐기며 흘러갔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는 숙소와 먼 아리세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다 같이 컵케이크를 만드는 교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행사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만 참석

한 관계로 본교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해서 말을 해보는 등, 한일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교류회에서 취미가 같은 일본인 친구를 만나 따로 연락을 나누며 더 깊이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 참가 성과

앞에서도 작성했지만, 이번 기회에 글로벌 역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해외에 나간다고 뭔가 달라질지 고민했던 과거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취업할 것이니 국제 정서와는 연관이 없다고만 느낀 과거와 달리 세계를 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습니다.

특히 알지 못하는 것에 선불리 생각하는 건 안 좋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이 유학 생활을 하게 된 서구권 친구들은 동양권과 문화가 달라 헛갈리거나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해당 유학에 온 학생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이상 일본 문화와 언어를 공부하며 배워온 학생들이었고 오히려 저보다 더 능숙한 모습에 저도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문화 뿐만 아니라 켜여 있는 한국, 중국의 입장도 들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태도는 이제까지 우리의 역사는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이니 편하지 않냐는 말에는 그래도 그 나라에 갔으면 해당 언어를 사용해서 예의를 갖추고 싶다는 말 또한 많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일본어 실력이 전보다 크게 성장했습니다.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간단한 대화조차 긴장하면서 열심히 말을 단어로 쥐어짰는데 최근에는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을 당시에는 너무 창피해서 도망치고 싶었던 전과 달리 다시 천천히 말하는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기초도 안 된 상태에서 반년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프로그램에 임하게 되었는데 정말 만만치 않은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은 단순히 자격증 공부와 달라서 듣고 선택지를 고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본어 실력이 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다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도할 마음가짐이 생긴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성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4. 본인 소요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 | 항목 | 금액(월) | 비고 | 합계 (6개월) |
|---------------|--------|-----------|-------------------------|----------|
| 고정 지출 | 월세 | 35,410엔 | 2월 이른 퇴실로 15,610엔 | 192,660엔 |
| | 전기 요금 | 평균 6,000엔 | 3,500엔에서 시작해서 7,000엔 갱신 | 24,141엔 |
| | 교통비 | 5,000엔 | | 30,000엔 |
| | 통신비 | 1,380엔 | Povo 통신사 5GB 기준 | 8,280엔 |
| | 건강 보험 | 2,300엔 | 12월, 1월, 2월은 절감 | 9,800엔 |
| 식비, 여가비 | 식비 | 31,730엔 | 식료품값 4,756엔 | 190,380엔 |
| | 관광 | 12,773엔 | | 76,638엔 |
| | 기타 여가 | 4,757엔 | | 28,542엔 |
| 프로그램 전 사용한 지출 | 항공비 | 240,000원 | 편도 고베 공항 대한항공 기준 | 480,000원 |
| | 여행자 보험 | | 한국에서 한번에 지불 | 100000원 |

5. 본 프로그램 참가 후 느낀 점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코로나 시기로 저의 세계가 가자 좁았던 시기였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집, 그것도 저의 방 안에서 수험 공부를 하며 지루해서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했습니다. 이 시기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여행 브이로그들이 우후죽순으로 성행하기 시작했고 저도 해당 미디어를 시청하면서 해외에 살고 싶다는 열망을 키워나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말겠다며 다짐하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사실 전 이 꿈을 반쯤 잊고 있었습니다. 올라오는 모집 요강을 간간히 확인했지만 혼자서는 움직일 용기가 나지 않았고 한국 수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바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전공 교수님께서 해당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이때 느낀 저의 꿈이 다시 떠오르는 감각을 느꼈고 꼭 도전하겠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프로그램에 도전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막연히 기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혼자 살아보는 자취가 일본이 처음이라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많이 부딪혀보며 바쁜

나날을 보낼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해내야 한다는 목표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해당 일상이 익숙해질 때쯤 외롭다는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만나는 친구, 가족, 익숙한 터전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으며 향수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울감을 버티게 해준 것은 버디 프로그램에서 만난 버디였습니다. 일본어가 아직 서툰 저를 위해 한국어로 대화를 이끌어주기도 했는데 한국어를 정말 잘했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여행도 자주 간다는 말에 나도 이렇게까지 일본어를 잘할 수 있을까 막연한 동경과 목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느끼는 한국의 좋은 부분을 듣는 것이 신기하고 유쾌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느끼는 일본의 유명한 것들을 말해주니 현지인인 본인은 그런 게 유행하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나라에 대한 동경이 뚜렷하게 보여서 유쾌한 추억이 됩니다. 저의 버디는 올해 인턴 활동을 한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어를 살려서 취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을 버디는 실제로 실행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이번에는 내가 도움을 주는 관계가 돼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전공도 달랐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교류에 있어서 큰 흠이 아니라는 것을 크게 느낀 바람직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강 신청 계획서를 읽고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전공 모두 일본어 작문 능력을 기본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시험 보는 도중 막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어 작문 실력이 좋지 않다면 시험을 보지 않거나 오픈북, 또는 레포트 대체 수업을 듣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이 많았던 부분은 예산안으로 한달살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크게 사치를 부리는 타입은 아니지만 자취가 처음이라 생활비 분배가 어렵게 다가와서 기존 정해진 분량보다 예비 돈을 모아두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학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식비를 줄이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매일 메뉴가 바뀌며 500엔 내외로 점심을 사 먹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격 대비 맛과 양이 준수하여 음식 욕심이 없다면 학식의 이용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6.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1) 학업계획

우선 학교로 돌아가 졸업 요건에 맞춰 졸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둘 예정입니다. 필요한 학점들을 계산해서 남은 1년도 잘 마무리해서 졸업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유학 오기 전 교수님께서 주최하시는 스터디에 관심이 있었는데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해 참여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후발주자지만 초조함을 가지지 않고 성실하게 임해서 스터디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잘 이뤄내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면서 우리 학교로 오는 유학생들에게 관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낯선 타지에 왔다는 불안감, 그럼에도 외국인과 교류하고 싶다

는 열정이 저에게도 존재했기 때문에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도 있습니다.

2) 진로계획

공부는 해외에서 하더라도 취직은 한국에서 해야지 하는 생각이 존재했으나 버디의 한국 인턴 취업을 통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기껏 글로벌 역량을 기르게 되었는데 이 점을 살릴 수 없을까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으며 길이 하나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지 진로가 구체적이진 않으나 다시 한번 해외를 도전하고 싶다는 바람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프로그램도 단순히 취업 자기소개서에 적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도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얻은 게 많았기에 해외 대학원 진학도 염주하고 있습니다.

7. 향후 참가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비자를 가진 외국인인 재류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해당 카드는 소수의 공항에서만 발급이 됩니다. 고베가쿠인대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고베 공항이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그곳으로 예매했다가 재류 카드 발급에 대해 인터넷에서 알려주지 않아 초조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신설 공항이라 고베공항의 재류 카드 발급 여부는 인터넷에 없는 정보지만 공항에서 발급해 주기 때문에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국인 전용 줄에 서서 간단한 질문과 함께 카드를 건네주십시오.

생활하는 도중 필요했던 것들이 몇 가지 존재했는데 일본에서 구하지 못했던 것들은 없었습니다. 약간의 의류, 상비약, 수건만 있다면 여기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짐을 많이 챙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먹거리 같은 경우는 고베의 중심지인 산노미야의 약국, 가게, 이마저도 없다면 아마존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하니 캐리어 공간을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배울 정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해하지 못한 문장들은 뒤늦게 복습으로 이해하거나 영원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위한 공부와 실제 용어들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책으로만 하는 공부는 광주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만 체험하거나 느낄 수 있는 문화, 견학 등을 충분히 누리고 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8. 기타사항 (프로그램 중 겪은 난관)

파견 프로그램을 온 것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배운 점도 좋았던 순간도 많았지만, 난관도 존재했습니다.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매 순간 편하게 즐기면서 다녀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한국이었다면 상상도 못 했을 문제라 처음 직면

했을 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끝나가는 시점 이런 난관은 다 해결이 되었고 다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더구나 난관의 해결 과정을 통해 전보다 더 성장할 수 있었기에 제가 교환 학생을 하며 겪은 난관은 공유하고자 해당 기사란에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웃의 지속적인 실내 흡연 문제]

- 한국에서 실내 흡연은 당연히 금기시되는 일이며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지탄받을 일이기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길거리 흡연에 있어서 엄격한 일본에서 실내 흡연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처음 도착하고 며칠 동안은 밖에서 처리할 일들이 많아 집에서 활동할 일이 적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9월은 아직 더운 시기라 냉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있어 느끼지 못했습니다. 날이 선선해지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을 때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맨션에서는 금연 규칙이 없으면 담배를 피우는 것에 큰 제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제가 거주하는 숙소에서는 금연 규칙이 있었지만 말 그대로 피우지 말아 달라는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여기서 어떤 조치도 더 할 수 없었기에 실례를 무릅쓰고 국제 교류센터 선생님들께 도움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틈을 막을 외풍 차단 용품도 갖췄으나, 환풍기를 통해 들어오는 냄새에 대한 방안은 찾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완벽한 해결과 방법은 아니지만 해당 사건을 겪으며 일본 흡연 사례와 판례들을 찾아본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담배 냄새가 난다면 관리 회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며 옆집과 직접적인 소통은 협박죄가 적용할 수 있으니 유학 중 해당 문제가 생긴다면 교류센터 선생님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의 더위와 추위]

- 일본에 9월에 도착하여 여름, 가을, 겨울을 겪은 결과 여름과 겨울은 상상 이상의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여행 차원에서 호텔 신세를 지며 놀다가 귀국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에는 크나큰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처음 도착 직후에는 커다란 짐들을 끌고 숙소로 도착했을 때 벌써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시설과 숙소의 냉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실내는 괜찮았지만, 야외는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바다와 인접한 고베는 습기가 강해서 되도록 숨이 찰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교육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캠퍼스 투어 당시에 야외에서 대학교 시설들을 구경하던 도중 가벼운 어지러움을 느껴 따로 보건실을 이용했을 정도로 고되게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한국의 가을보다는 체감상 시기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금세 추워져 버리는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2개월 정도는 선선한 날씨를 만끽하며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어 이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겨울 또한 만만치 않게 춥고 난방 시스템이 아쉬웠습니다. 온돌, 보일러가 없

어서 에어컨 형식의 히터 하나에 온전히 추위를 맡겨야 합니다. 온수를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히터의 사용 시간이 에어컨의 사용 시간보다 적었음에도 전기세는 겨울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숙소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 것은 좋지만 학교를 거쳐 갈 때 바닷바람에 몸이 시려서 뛰쳐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보다 기온이 높고 실내의 외풍을 막기 위한 부자재, 담요를 구매해서 겨울철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소소한 난관들이 존재합니다. 해당 숙소에는 택배 보관함이 존재하지만, 어떤 택배들은 직접 받아야 하는 원칙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대에 언제 올지 모르는 택배 기사님을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지도를 언급할 때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거나 영토 분쟁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심란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육받는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실제로 경험하니 충격이 배로 컸기에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유학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9. 활동사진(2장 이상 사진 설명 필요)



고베 명물 포트타워입니다.

숙소에서 바다를 보면 해당 건축물이 보이고 저녁에 아주 예쁜 전망대입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구경한 적은 없으나 인근 지역에 하버랜드라는 관광 쇼핑물 센터가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숙소 근처 바다>



<간사이 지역 관광>